

“절밥 먹으며 한문경전 공부해요”

백양사, 재가자 전통강원 개설

포교사를 비롯한 재가자들도 사찰의 전통강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스님)는 교계 최초로 포교사를 비롯한 일반 재가불자와 타종단 스님들을 위한 전문 강원을 개설한다.

오는 3월 3일 개강하는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은 2년 과정에 초발심자경문, 치문,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서장, 도서, 절요, 능엄경, 법성경, 화엄경 등 일반 강원에서의 교과목을 전통 교육방식으로 공부하며, 입학자격은 모든 불교종단의 비구, 비구니와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갖춘 재가불자녀 누구나에게나 개방된다.

주지 진우 스님은 “참사람 결사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원교육은 포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보다 높은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조계종에서 처음으로 범종단적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수방법도 기존 강원형식과 같이한다. 강의를 진행할 백양사 강원 강주 우궁 스님은 “일반적 불교교육단체는 불교경전을 개론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이번 백양사 포교사 강원은 한문위주로 하는 원문강의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어려운 한문공부에 대해서도 “먼저 각 교과목과 경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줄거리를 읽힌 후에 각 세부내용을 선별하여 공부를 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경전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공부하는 방식에는 타종단 스님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을 배려했다.

**스님·포교사 대상으로 접수
숙식형과 통학 2개반 운영
한문 교육으로 6년 4학기 과정**

먼저 이수기간이 대폭 길어졌다. 학기제로 4학기(2년)을 이수하면 되지만, 기간은 6년으로 길어졌다. 즉, 6년간 4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백양사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상주형 대중과 토요일 오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학형 대중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주형 대중은 비구 3명과 우바세 20명으로 한정하여, 백양사에서 전통강원 방식으로 승가생활에 준하는 대중생활을 하게



고불총림 백양사는 교계 최초로 포교사를 비롯한 일반 재가불자와 타종단 스님들을 위한 전문 강원을 개설하고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된다.

통학형 대중은 스님들을 비롯해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맞춤 강의법이다.

주지 진우 스님은 졸업자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문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백양사와 관련된 말사, 포교당 그리고 포교현장에 배치되어 불교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활용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세부적 활동에 대해서도 “현재 백양사 뿐 아니라 각 말사에서 수련회와 템플스테이, 법회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백양사 포교사 전문강원은 기존 출가 승려에게 한정되었던 강원 교육을 타종단과 재가 수행자에게까지 확대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주지 진우 스님은 “최근 서용 스님의 참사람 결사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스님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참사람의 가치를 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취지를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당 뒤 불교 문화재 훼손 심각

익산 화산리 마애삼존불 보존대책 마련 시급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화산천주교회(일명 나바위성당) 뒤편 바위에 조성된 화산리 마애여래 삼존불의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충남 강경의 금강 황산포구가 내려다보이는 바위에 새겨진 화산리 마애여래 삼존불은 높이 약 4m에 이르는 깎아지른 바위에 본존의 높이 3m에 이른다.

이 마애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 인조 때 비상시 군량보급창으로 이용되던 인근의 나암창과 관련하여 식량 운반이 순조롭고 강경 황산포구의 고깃배들이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가면서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은 여래좌상으로 하의가 단을 덮고 있는 상현좌 형식을 하고 있고 본존을 중심으로 양쪽의 협시보살은 광배가 새겨져 있으나 조각이 얇고 마멸이 심해 알아보기 힘들고 아래 부분은 조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면서 불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한국사지총람, 2010 문화재청)

현재 이 마애삼존불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마모 상태가 심하고 바위 틈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주변의 나무가 우거져 있어 습도 또한 높아 훼손이 심한 상태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성당 안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작은 길을 따라 바위 아래로 내려가야 해 접근도 쉽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지역의 불자들도 마애불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일까지 빈번해 성당 측에서 경고를 세워놓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불자들은 문화재로 가치를 적다하더라도 금강의 옛길 안전을 기원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마애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홀한 것 같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화산리 마애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성당 측과 협의해 안내판을 세우는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위에는 천주교에서 망금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세워놓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화산천주교회 뒤편 바위에 조성된 마애여래 삼존불의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백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백산장학재단은 1월 27일 전주관광호텔 백악홀에서 2013년 신년하례를 겸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1월 27일 전주 관광호텔서

백산장학재단(이사장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회주)은 1월 27일 전주관광호텔 백악홀에서 2013년 신년하례를 겸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백산장학재단은 중·고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1,470 만원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개사년 신년하례에 이어 법진 스님의 장학재단 경과보고, 장학증서 전달, 도영 스님의 법어,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내빈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완주 송광사, 금산암, 흥복사, 죽림정사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대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랑과 관심을 받

은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며 “인재불사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젊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년하례식에서는 참석한 스님들이 축복경(알갈라 솟따)을 한 목소리로 암송하며 참석대중들의 새해 선업을 쌓아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지난 2010년 발족한 백산장학재단은 재단기금 마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출범한 이래 2011년에 1,4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래하고 춤추며 건강 찾았죠”

대해노인복지센터 건강체조 호응 커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법림사 주지)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구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매주 센터에서 마련한 ‘건강 체조 합시다’, ‘신나는 노래교실’에 참여해 연일 최신크에 맞춰 체조를 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트로트 가요가 나오면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치매질환을 갖고있는 양 모(78) 할머니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있으니 기분이 한결 좋다”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했다.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은 정서지원과 인지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다. 무진 스님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이를 동반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나는 노래교실에서는 동요, 트로트, 민요, 타령 등을 선택, 진행자와 참여 어르신들이 같이 노래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을 찾아주는 프로그



대해노인복지센터 건강체조 교실 장면

램이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계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불교계 단체이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 밀반찬 제공 및 각종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생필품지원, 무료급, 나들이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정마을 아픔 함께 보듬겠다”

제주불교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설립

제주불교환경연대가 출범한다. 제주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회의를 갖고 3월 발족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을 위한 용왕대제가 성공리에 개최됨에 따라 발족을 결의한 것이다.

제주불교환경연대는 2월까지 각 종단

스님과 환경전문가를 추천받아 임원을 구성하고 3월 경에 발기인 대회를 통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불교연합회는 조계종 태고종 범해종 (제)일부선교종 등 각 종단들이 열흘에 한번 법회를 주관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정혜숙 기자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송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작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리(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범은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영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범패·작법무- 불교예술포럼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십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